

동아시아 모전석탑의 기원에 대한 소고(小考)

김 준 영*

〈목 차〉

- I. 머리말
- II.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석탑재(石塔材)에 대한 인식
- III. ‘塼石’과 ‘甄石’의 의미
- IV. 중국의 석탑에 대한 인식과 모전석탑 양식의 전래
- V. 맺음말

국문요약

흔히들 중국의 석탑을 언급할 때에는 ‘四門塔’(611)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이 탑은 방형의 괴체 마름돌로 쌓아 만든 단층 석탑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국의 전탑과 석탑 중 가장 이른 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탑이 건립된 이후에도 8세기 이전에 쌓기식 방법으로 조성된 중국의 석탑은 2층을 넘지 않는 규모로 한정되는 반면, 고층식의 불탑은 하나같이 전탑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사문탑’과 거의 동시대에 건립된 신라의 ‘분황사석탑’(634)이 다층고탑형(多層高塔形)으로 조성된 것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아마도 모전석탑이라는 새로운 불탑 양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결국 벽돌과 방형 석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언급되고 있는 인도 불탑의 상당수는 아육왕탑으로서 방형의 마름돌로 쌓은 석탑이 많았지만, 각 지역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맞추어 돌이 아닌 다른 재료로 조성되기도 했다. 인도의 불탑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7세기 초에 중국에도 ‘사문탑’처럼 방형 마름돌을 이용한 불탑이 제작되었

본 논문은 필자가 영남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芬皇寺石塔 研究』, 2014)의 97~120쪽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 영남대학교 강사

으며 적어도 7세기 중엽까지 방형의 마름돌과 소성벽돌은 각각 ‘塼石’과 ‘甗石’으로 불렸다.

또한 7세기 중엽에 건립된 ‘대안탑(大雁塔)’은 원래 인도의 새로운 건축법을 이용하여 석탑으로 조성하고자 했지만 공사의 어려움을 우려한 국왕의 명령으로 부득이 전탑으로 고쳐 건립되었다. 이를 통해 7세기 중엽까지도 중국에서는 비록 전탑 조축의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었음에도 방형의 마름돌을 쌓아 고층탑을 만드는 방식은 전탑과는 달리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塼石’을 이용한 탑형은 2층 이하의 규모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7세기 초 수(隋)왕실의 적극적인 대외교섭 과정에 전해진 방형 마름돌을 쌓아 만드는 방식과 단층형 인도 스투파의 형식이 불탑 조축법의 원형으로 인식되어 중국 석탑 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모전석탑(模塼石塔), 석탑(石塔), 전탑(塼塔), 전석(塼石, 甗石), 사문탑(四門塔), 대안탑(大雁塔), 현장(玄奘), 불탑(佛塔)

I. 머리말

방형으로 가공한 마름돌을 이용하여 불탑을 쌓는 방식은 일찍이 인도 스투파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런 조축법이 적용된 석탑을 흔히 ‘모전석탑’이라 칭한다. 이 명칭은 벽돌 모양으로 가공한 석재, 즉 ‘모전석(摸搏石)’을 마치 전탑(塼塔)의 축조 방식으로 쌓았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데¹⁾ 이 때문에 ‘모전석탑’은 마치 전탑의 모방물이라는 인식으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마름돌을 쌓아 만든 이와 같은 불탑은 인도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전탑과는 별개의 양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흔히들 중국의 모전석탑을 언급할 때에는 ‘사문탑’(四門塔, 611)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데, 이 탑은 방형의 괴체 마름돌로 쌓아 만든 단층 석탑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국의 석탑 중 가장 이른 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탑이 건립된 이후에도 8세기 이전까지 마름돌 쌓기식 방법으로 조성된 중국의 석탑은 대개 2층을 넘지 않는 규모로 한정되는 반면, 고층식의 불탑은 하나같이 전탑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사문탑과 거의 동시대에 건립된 신라의 분황사석탑(634)이 고층형으로 조성된 것과 비교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석탑의 이러한 특징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필자는 이것이 모전석탑이라는 새로운 불탑 양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결국 벽돌과 방형 석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인식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¹⁾ 원래 모전석탑은 (중국의)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의미였지만 이후 석재의 형식에 주목하여 벽돌을 모방한 석재를 전탑처럼 쌓은 석탑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이 모두는 분황사석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자는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 1904)와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 亥治郎, 1933)의, 후자는 고유섭의 견해였다.(關野 貞/關野貞博士記念事業會, 『慶州新羅における新羅時代の遺跡』,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東京), 1941, 666쪽. 원래 이 책은 『東京帝國大學韓國建築調査報告』(1904)였음; 藤島 亥治郎, 『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變型三層石塔, 五層石塔及び特殊型石塔』, 『建築雜誌』47(579), 1933, 1634쪽;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一)』, 『震檀學報』6, 1936, 416~417쪽; 『朝鮮塔婆의 研究(二)』, 『佛教』24, 불교사, 1940, 5쪽(『朝鮮塔婆의 研究』上, 『又玄 高裕變 全集』3, 열화당, 2010, 61·240쪽) 하지만 이것은 분황사석탑이 이들이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대안탑과 소안탑 등의 방형 전탑들보다 제작시기가 훨씬 앞선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모전석탑’이라는 용어는 좁게는 분황사석탑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넓게는 신라석탑의 기원을 중국 전탑에 종속시키기 위한 용어라는 점에서 향후 ‘모전석탑’이라는 용어 사용의 재고를 요한다. ‘모전석탑’ 용어에 대한 문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김준영, 『芬皇寺石塔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6쪽’을 참고할 것.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도석탑과 석탑재에 대한 7세기 중국인들의 인식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현장이 기록한 인도 석탑과 탑재에 대한 내용은 이것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석탑의 등장과 전개과정을 통해 방형 석재를 쌓아 만든 석탑이 당시 중국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II.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석탑재(石塔材)에 대한 인식

『대당서역기』에는 현장(玄奘)이 구법 순례(629~645) 과정에서 목격한 수많은 불탑들이 기록되어 있다. 비록 이 책에는 그가 목격한 탑들이 하나하나 자세 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도의 석탑에 대한 그의 견문(見聞)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²⁾ 또한 현장은 이 책에서 자신이 직접 보았거나 전해들은 탑들의 명칭을 모두 ‘솔도파’(窣堵波, stupa)로 일관하고 있어 이 책이 편찬되던 무렵까지도 중국에서는 사리의 유무나 사리의 주체에 따라 탑파를 불탑(佛塔), 지제(支提), 승탑(僧塔) 등과 같이 그 성격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³⁾

한편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탑파들이 ‘솔도파’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간혹 ‘石窣堵波’, ‘甌(塼)窣堵波’, ‘靑石窣堵波’ 등과 같이 재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어 주목된다.⁴⁾ 그러면 재료가 언급되지 않은 ‘솔도파’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 『대당서역기』보다 앞서 찬술된 『속고승전』(續高僧傳, 645)의 ‘현장조’에 기록된 다음 내용이 그 실마리를 줄

2) 『大唐西域記』卷1, T.51, No.2087, 874a:19-22 “大城東南三十餘里至曷邏訶羅僧伽藍, 傍有窣堵波, 高百餘尺, 或至齋日, 時燭光明, 覆鉢勢上石隙間流出黑香油, 靜夜中時聞音樂之聲” 북발 위의 돌 틈새에서 흑향유가 흘러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탑이 석탑이었음을 알 수 있다. ; 『大唐西域記』卷10, T.51, No.2087, 932a:1-2 “其東有窣堵波, 崇基已陷, 覆鉢猶存, 無憂王之所建立”

3) 탑파의 명칭을 구분해서 설명한 『一切經音義』가 중국에서 8세기에 저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시기에는 탑파에 대한 성격 구분이 지금처럼 명확히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던 듯하다.

4) 『大唐西域記』卷7, T.51, No.2087, 905b:22-26 “精舍西南有石窣堵波, 無憂王建也”; 『大唐西域記』卷6, T.51, No.2087, 902b:20-23. “城東南有甌窣堵波, 高減百尺”; 『大唐西域記』卷5, T.51, No.2087, 896c:20-22 “北臨旃伽河, 中有塼窣堵波 高百餘尺”; 『大唐西域記』卷5, T.51, No.2087, 897a:13-17 “復有如來髮爪, 靑石窣堵波”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A. 아육왕(阿育王)은 호가 무우(無憂)인데, 부처를 뵈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게 일었다. 이후 이 성적(聖迹)에 모두 명기(銘記)를 일으킨 까닭에 이곳에 석탑(石塔)을 세웠다. 높이는 삼십 여장(丈)이며 석벽에 부처님의 형상이 있다.⁵⁾

위의 내용은 무우왕(無憂王) 즉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이 인도 전역에 세웠다고 하는 아육왕탑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아육왕탑을 부처의 성스러운 자취가 있는 장소를 기려서 세운 석탑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당서역기』에도 현장이 구법활동 중 목격한 상당수의 인도 솔도파를 ‘무우탑’ 즉 ‘아육왕탑’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위의 글(A)은 아육왕탑에 대한 현장의 견문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가 인도에서 보았던 아육왕탑의 상당수가 실제로 석탑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겠다. 하지만 『대당서역기』에는 석재로 만들어진 불탑을 벽돌로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한 내용이 보인다.

- B. 성의 서북쪽으로 4·5리쯤에 솔도파가 하나 있다. 높이가 2백여 척인데 무우왕(無憂王)이 세운 것이다. 벽돌(甃)이 모두 황적색을 띠고 있는데 매우 맑으면서 맑다. 그 안에 여래의 사리 한 말(斗)이 있다.⁶⁾
- C. 몽게리성(曹揭釐城) 서쪽으로 오십 여리 가서 큰 강을 건너니 노혜달가(盧醯咄迦, 당나라 말로 붉다는 뜻이다) 솔도파에 다다랐다. 높이가 오십 여 척 정도인데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⁷⁾

위의 글 B는 아육왕탑의 재료를 ‘황적색(黃赤色)의 밝고 맑은 벽돌(甃)’로 기록하고 있는데 밝고 맑은, 즉 광택이 난다는 점에서 사르나스(Sarnath)의 아쇼카 석주나 파트나(Patna)의 디다르간지(Didarganzi) 약시(Yaksi)상에 사용된 추나르(chunar) 사암 재질의 마름돌을 현장은 벽돌(甃)로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5) “阿育王者，此號無憂，恨不親佛，興諸感戀，結是聖迹皆起銘記，故於此處爲建石塔，高三十餘丈，又有石壁佛影”(『續高僧傳』卷4, T.50, No.2060, 448b:9-15.)

6) “城西北四五里，有窣堵波，高二百餘尺，無憂王之所建也，甃皆黃赤色，甚光淨，中有如來舍利一斗”(『大唐西域記』卷4, 891a:10-12.)

7) “曹揭釐城西五十餘里，渡大河，至盧醯咄迦唐言赤窣堵波，高五十餘尺，無憂王之所建也”(『大唐西域記』卷3, 883b:12-16.)



도 1. 데오가르(Deogarh) 사원, 적사암, 인도 비하르 6세기 초

한다. 또한 인도의 초기 힌두교 사원들이 벽돌로 지어졌지만 6세기 부터 벽돌이 돌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붉은 색의 적사암이 탑파나 사원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므로⁸⁾ 위의 글 C의 ‘노혜달가(盧醯咄迦)’ 즉 붉은 색이라는 의미의 솔도파가 아육왕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적사암을 이용한 석탑이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⁹⁾ 이 밖에도 『대당서역기』에는 사원이나 탑파의 재료로 ‘搏石’과 ‘甄石’이 함께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D. 갈주온기라국(羯朱嚙祇羅國)에…크고 높은 대(臺)가 있는데 甄石으로 쌓아 세운 것이다.¹⁰⁾

E. 겁비타국(劫比他國)…성의 서쪽으로 이십여리 정도에 대가람이 있는데…搏石으로 쌓았으며 진귀한 보배로 장식되어 있다.¹¹⁾

위의 글은 갈주온기라국(羯朱嚙祇羅國)의 성(城) 안에 남아 있는 기단(臺)과 겁비타국(劫比他國)의 어느 대사원이 ‘甄石’과 ‘搏石’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이것은 대개 ‘벽돌과 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8) 이숙희 역(비드야 데헤자 저), 『인도미술』, 한길아트, 2001, 141~143쪽 참고.

9) 『中阿含經』과 같은 원시경전에는 세상에 있는 보배들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 은, 수정, 유리, 마니, 진주, 벽옥, 백가, 나벽, 산호, 호박, 마노, 대모, 적석(赤石), 선주’ 등이 열거 되어 있다.(『中阿含經』卷8, T.1, No.26, 476a:15-18 “我大海中多有珍寶, 無量瑣異, 種種珍琦, 充滿其中, 珍寶名者, 謂金銀水精琉璃摩尼眞珠碧玉白珂 螺璧珊瑚琥珀馬瑙瑠璃赤石琬珠”) 이 밖의 여러 경전에서도 보배로 만든 불탑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는 이러한 종류의 보배와 구슬들로 장엄되거나 만들어진 것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함부 경전에서는 불탑을 조성할 때에도 수정이나, 석재, 또는 보석들을 그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서 열거된 재료들 중 실제의 불탑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赤石’ 정도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흔히 건축 재료로 사용되던 적사암으로 보배 ‘적석’을 현실에서 구현하여 이를 통해 ‘寶塔’을 상징적으로 함께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羯朱嚙祇羅國…有大高臺, 積壘甄石, 而以建焉”(『大唐西域記』卷10, T.51, No.2087, 927a:4-13.)

11) “劫比他國…城西二十餘里有大伽藍…疊以搏石 飾以珍寶”(『大唐西域記』卷4, 893a:21-893b:5.)

왔다. 지금은 비록 ‘甗’과 ‘搏’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하나의 문헌 안에서 동일한 재료를 굳이 다른 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이것이 동의이형(同意異形) 글자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기보다 오히려 다른 재질이면서도 유사한 형식의 재료를 가리키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대당서역기』 저자의 특별한 의도 때문일 것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벽돌 또는 방형 석재에 대한 당시 중국식 표현으로서 여기에는 이 재료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搏石’과 ‘甗石’의 의미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에는 전탑과 방형의 마름돌을 쌓아 만든 석탑이 전탑과 공존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찍이 고유섭은 이런 현상, 특히 인도에서 전탑과 석탑이 함께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일반으로 중인도(中印度)에서는 석재가 비교적 적은 까닭에 주로 전탑이 많이 이루어지고, 북방 고원지대로부터 동서는 석재가 비교적 많은 까닭으로 석재를 주로 하고”라고 하여¹²⁾ 석재 공급의 용이성 여부를 기준으로 그 발생 배경을 이해했다. 또한 중국의 전탑에 대해서는 “위진 이래 점차로 인도·서역의 홍포승(弘布僧)으로 중국에 오는 자가 많고, 따라서 중국과의 왕래도 빈번해지매 서역·천축의 탑과 본래의 면목이 차차 전하여지고, 그곳에 서역·천축 본래의 탑파에 접근하려 하여 중국에도 전탑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¹³⁾ 중국 전탑의 기원을 인도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인도 불탑의 영향으로 이해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① 불탑은 원래 석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 ② 재료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벽돌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중국의 전탑은 인도 불탑의 원형을 따르고자 했던 조형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¹²⁾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上, 『又玄 高裕變 全集』3, 열화당, 2010, 239쪽.

¹³⁾ 고유섭, 앞의 책, 238~239쪽.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작기법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재료를 건축재로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진흙을 햇볕에 말리는 날벽돌과 달리 불에 구워 만드는 소성벽돌의 경우에는 보다 고차원의 인위적 기술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석조보다 후대의 기법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된다. 비록 분황사석탑과 신라전탑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순수 전탑은 날날 石材를 절단하여 다듬어야 하는 模搗石塔의 과도한 人力 또는 경제성을 고려한 보다 발전된 양식으로 이해될 것”이라 했던 장충식의 언급은 이와 관련해 되새겨볼만 하다.¹⁴⁾ 하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모전석탑 양식과 전탑의 공존 현상은 자연환경과 제작기술의 진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리 그 선후를 논할 수 없겠으나 조형의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¹⁵⁾

굳이 고유섭의 언급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중국 불탑이 인도 불탑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중국에서 전탑이 대중을 이루는 중에서도 방형의 마름돌을 쌓아 만든 소위 ‘모전석탑’양식이 늦어도 7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대당서역기』에서 현장이 인도 스투파의 재료로 언급한 ‘塼石’과 ‘甃石’이 중국 불탑과 관련한 여러 문헌에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당시 인도 불탑과 그 제작기법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물론, 인도 불탑과 중국 불탑의 영향관계를 살피는 것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법을 위해 인도로 떠났던 현장은 여정 중에 다양한 불탑들을 보았고 또 그것을 『대당서역기』에 기록했다. 그리고 글 A에서 보았듯이 『속고승전』의 ‘현장조’에 인도의 아육왕탑이 석탑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당서역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육왕탑도 석탑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육왕탑이 아쇼카왕에 의해 인도 전역에 세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벽돌을 이용하여 불탑을 건립하기도 했을 것이다. 더구나 실제 아쇼카왕이 건립한 불탑보다는 후대에 관념적으로 아육왕탑으로 불린 예도 많았을 것이므로 재료를 특정하는 것이 의미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 불탑의 형식 기원 문제와는 상관없이 불교가 전래된 이후의

14) 장충식,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1994, 81쪽 참고.

15) 여기에는 불탑의 기원과 고대인도의 건축 재료, 흙과 돌에 대한 고대 인도인들의 관념, 고대인도인들의 장례법 등 매우 다양한 문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인도 불탑의 기원으로부터 한참이 지나서 등장한 동아시아의 석탑과 그 제작기법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장에서는 우선 앞의 장에서 제기된 인도 불탑의 탑재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에 주목하고 싶다.

중국에서는 돌로 제작된 간다라와 인도 스투파가 인도 불탑 또는 아육왕탑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석탑이 많았던 간다라나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의 포교승과 역경승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목격하고 『대당서역기』에 ‘塼石’과 ‘甃石’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두 용어는 탑재로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불탑의 작법(作法)을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비록 방형 석재와 벽돌이 탑재로 공존하긴 하지만 기본이 되는 작법의 원칙은 있었을 것이며, 다만 그것이 이후 적용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맞춰 변용(變用)되었던 것이 아닐까한다. 물론 필자의 이런 생각이 앞서 고유섭과 장충식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반니원경(般泥洹經)』과 『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 같은 ‘아함부’ 경전에 석재를 불탑재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듯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¹⁶⁾

F. 이미 사리를 나누고, 또 먼 곳의 여러 네 무리 제자들이 아직 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90일을 머물렀다가 탑묘(塔廟)를 세웠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귀족·백성·집안 권속·노비들이 모두 90일 동안 재계(齋戒)하였다. 먼 곳에 있던 네 무리 제자들이 다 구이성에 모여 함께 아난에게 물었다. “어디다 탑을 세울 것입니까?” 아난은 대답하였다. “마땅히 성에서 4리쯤 되는 위치향(衛致鄉) 네거리 가운데 탑묘를 세울 것이다.” 구이국의 호성(豪姓)들이 함께 날벽돌 모양의 돌을 만들었는데(作甃石甃), 가로와 세로가 3척이었다. 이를 모아서 탑을 쌓았다.¹⁷⁾

G. 여러 비구들이 아난에게 장례를 지내는 법에 대해 어찌할지 물어보니 아난이 답하기를 “동쪽으로 나가서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이름이 위치(衛致)입니다. 그곳 네거리에 찰간을 높이 세우고 불탑(廟)을 세울 것입니다. 옥으로 벽돌을 만들되(以玉作甃), 벽돌의 길이와 너비는 정방형으로 석 자가 되게 하시오.”¹⁸⁾

위의 글은 모두 석가의 열반 이후에 비구들이 아난에게 장례법을 묻는 내용

16) 우인보, 『阿舍部 經典의 佛塔信仰思想』, 『문화사학』33, 2010, 121~145쪽.

17) “旣分舍利, 又爲遠方諸四輩弟子, 未悉聞故, 留九十日, 乃起塔廟…共問阿難, 於何起塔, 阿難答言, 當出去城四十里, 於衛致鄉四衢道中作塔廟, 夷豪姓, 共作甃石甃, 縱廣三尺, 集用作塔”(『般泥洹經』卷下, T.1, No.6, 190c:9-15.)

18) “諸比丘俱問阿難, 葬法云何, 答曰…有四衢時刹立廟, 以玉作甃, 甃之縱廣其方三尺”(『佛般泥洹經』卷下, T.1, No.5, 174c:9-12.)

으로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불탑을 제작할 때에 ‘作甌石磬’, ‘以玉作磬’하라는 아난의 대답이다.

‘作甌石磬’은 돌(石)을 방형 모양(甌)의 날벽돌(磬)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以玉作磬’은 말 그대로 옥(玉)으로 방형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방형의 마름돌로 불탑을 쌓는 것이 작법의 원형인 듯하다. 물론 이 밖의 아함부 경전에서는 여러 보석류를 불탑의 재료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재료들도 대개 석질(石質)의 광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¹⁹⁾ 따라서 인도에서는 방형의 마름돌로 불탑을 세운다는 관념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건조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흙벽돌(날벽돌)로 제작된 불탑도 발견 되는데, 이것을 소성용 빨감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⁰⁾ 이것은 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불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작법의 원칙이 각 지역의 환경조건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헌에서는 불탑의 작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H. 여러 비구와 백불(白佛)이 (불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방형이나 팔각형으로 또는 원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다시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연히 전석이나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應以塼石若木作).”²¹⁾

위의 내용은 서역 출신의 축불염(竺佛念)이 405년에 한역한 『사분율(四分律)』의 내용 중 불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의 대답이다. 여기서 부처는 불탑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묻는 비구들의 질문에 “應以塼石” 즉 “당연히 ‘塼石’으로 만들라”고 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컫고 있는 ‘塼石’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벽돌과 돌’ 두 가지의 재료 모두를, 다른 하나는 단일재료로서의 ‘塼石’ 즉 ‘벽돌모양의 석재’이다.²²⁾

19) 각주 9) 참고.

20)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2000, 38쪽.

21) “諸比丘白佛，佛言聽作，不知云何作，佛言，應四方若八角若圓作，復不知以何物作，佛言，應以塼石若木作”(『四分律』卷52, T.22, No.1428, 957c:8-11.)

22) ‘塼(塼)’과 ‘石’을 별개의 재료로 언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용례가 많이 보인다. 『四分律』卷50, T.22, No.1428, 938b:7-16 “佛言，聽以石若塼若木作道。爾時耆闍崛山中去水遠，佛言，聽作渠作時患渠崩決。佛言，聽以石若塼若木障兩邊，若寺內應作池。若池邊崩決。聽以石若塼若木障兩邊。上應作屋覆。若池邊患泥應安石若塼若板若碎石。患小兒墮水。佛言，聽作欄。彼池水熱。佛言，

필자는 ‘塼石’을 ‘벽돌과 나무’가 아닌 하나의 일반명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I. 당(唐) 용삭(龍朔) 원년에 임금은 칙령을 내려 회창사(會昌寺)의 승려 회색(會曠)을 시켜 오대산(五臺山)에 가서 사탑(寺塔)을 수리하게 했다. 그 산은 대주(代州)의 오대현(五臺縣)에 속했으며 오대(五臺)를 갖추어 있는데 중대(中臺)가 제일 높아 눈이 닿는 곳에는 천 리의 강산이 손바닥처럼 다 보인다. 위에는 수천 개의 석탑이 있는데 전석(塼石)으로 쌓은 것이다. 이것은 다 위(魏)의 고조 효문제(高祖孝文帝)가 세운 것이다.²³⁾

J. 당(唐)의 용삭(龍朔) 원년에 임금은 칙명을 내려 회창사(會昌寺)의 승려 회색(會曠)으로 하여금 오대산에 가서 절과 탑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 산은 대주(岱州) 오대현(五臺縣)에 속해 있는데 오대(五臺)를 갖추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 중대(中臺)가 가장 높았는데 멀리 바라보면 천 리가 보여 산천이 마치 손바닥을 보는 듯 하였다. 산꼭대기에는 박석(薄石)을 포개어 쌓은 수천 개의 석탑(石塔)이 있는데, 이 탑들은 모두 위(魏)의 고조(高祖)인 효문제(孝文帝)가 세운 것이었다.²⁴⁾

K. 오대산 이곳은 신성(神聖)이 쉬는 곳으로 중대(中臺)가 가장 높다. 여러 산들을 바라보니 아래로 나란히 하며, 위로는 태화(太華)라고 하는 큰 강이 있다. 부근에 탑이 두 개 있으며, 그 뒤로 수백천의 소석탑(小石塔)이 있다. 이것은 효문제가 북항안(北恒安)을 좇아 여기에 와서 세운 것이다.²⁵⁾

위의 글은 각각 『법원주림(法苑珠林)』과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그리고 『속고승전(續高僧傳)』에서 북위 효문제(孝文帝, 재위 467

聽瓶盛晝日內屋中夜置在外。若屋內患泥。聽別作安水屋。若地泥汚脚。聽安石若輒若碎石彼須水器應與。”；『四分律』卷53, T22, No.1428, 960a:13 “佛言, 聽以竹壓草, 若石若木鎖上”；『一切經音義』卷13, T.54, No.2128, 386b:6 “窈觀波…(중략)…皆得作塔或石或塼或木塔是也”；『摩訶僧祇律』卷35, T22, No.1425, 508b:28 “若瓦若石若木作蓋覆上”；『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T19, No.1022, 713b:17 “或土或木若石若輒”

23) “唐龍朔元年, 下勅令會昌寺僧會曠往五臺山修理寺塔, 其山屬代州五臺縣, 備有五臺, 中臺最高, 目極千里山川如掌, 上有石塔數千所, 塼石壘之, 斯並魏高祖孝文帝所立”(『法苑珠林』卷14, T.53, No.2122, 393a:9-12.)

24) “唐龍朔元年, 下勅令會昌寺僧會曠往五臺山修理寺塔, 其山屬岱州五臺縣, 備有五臺, 中臺最高, 目極千里山川如掌, 上有石塔數千, 薄石壘之”(『集神州三寶感通錄』卷中, T.52, No.2106, 422c:9-12.)

25) “五臺山者, 斯爲神聖所憩, 中臺最高, 所望諸山並下, 上有大泉名曰太華, 傍有二塔, 後諸小石塔動有百千, 云是孝文從北恒安至此所立”(『續高僧傳』卷25, T.50, No.2060, 665a:21-24.)

~499)가 세운 오대산(五台山) 석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내용에 따르면 오대산에 세워진 석탑들이 모두 ‘薄石’을 쌓아 만든 것들이며 ‘薄石’이 ‘塼石’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책들이 편찬된 7세기 중엽까지도 ‘塼石’은 판석과 같은 방형석재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다음은 이를 좀 더 분명히 밝히고 있다.

L.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당연히 판목(版木)이나 전석(塼石)을 이용하여 물병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²⁶⁾

M. 만일 사찰을 조성하는 과정에 처음 먹줄을 칠 때, 처소를 정하기 위해 절의 사방에 전석(塼石)을 놓아두어야 한다.²⁷⁾

위 글은 의정(義淨, 635~713)이 한역한 『근본설일체유부목득가(根本說一切有部目得迦)』와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의 일부이다. 글 L에서 부처님은 물병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평편한 판목(版木) 즉 널빤지나 ‘塼石’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벽돌(塼)이나 돌(石)로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판자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편편한 돌 즉 석판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글 M은 사찰을 조성할 때 건물을 세울 예정지에 표식을 해 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글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벽돌이나 돌을 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로 판석을 놓아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밖의 여러 문헌에서도 “如草及塼石”,²⁸⁾ “滑漚及塼石”·“塼石上”²⁹⁾ 등과 같은 표현이 발견되는데 글의 대응관계나 내용상 ‘塼石’을 ‘벽돌과 돌’ 보다는 모두 단일재료로서의 ‘塼石’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문헌에서 ‘石塼(甄)’이라는 표현도 눈에 띄는데 ‘돌과 벽돌’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 표현했던 방식이 아닌가 한다.³⁰⁾ 물론 ‘石塼(甄)’으로 불리는

26) “佛言. 應用版木或以塼石安置水瓶不令虫入.”(『根本說一切有部目得迦』卷9, T.24, No.1452, 451a:11-12.)

27) “若創造寺初耕細時, 於寺四方應置塼石, 以爲定處.”(『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卷9, T.24, No.1453, 495a:22-23.)

28)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卷7, T.8, No.261, 896b:29.

29) 『摩訶僧祇律』卷15, T.22, No.1425, 344a:28-29.

30) 『摩訶僧祇律』卷19, T.22, No.1425, 385b:16 “若木石塼瓦種種諸物在露地”; 『十誦律』卷34, T.23, No.1435, 248c:23-24 “何物作井欄 佛言, 應以木石塼作”; 『法苑珠林』卷35, T.53, No.2122, 565c:29-566a:1 “見已舍內爲賊劫掠 唯有木石塼瓦等. 見此事已”; 『四分律』卷50, T.22.

또 다른 재료가 있었거나 ‘搏(甄)石’의 다른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무튼 ‘石搏(甄)’이 불탑재로 표현된 예는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搏石’은 ‘관석 모양의 방형 석재’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甄石’은 어떤 재료를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본 ‘搏石’의 이체자(異體字)에 불과한 것일까?

N.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조그만 목욕실(洗室)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면 이에 땅이 진창이 될까 걱정이 될 것이다. 전석(甄石)이나 나무 또는 깨트린 돌(자갈)이나 모래를 깎다면 이 때문에 진흙은 물기를 빨리 없앨 수 있다.”³¹⁾

위의 글은 『사분율』 권50에 보이는 내용으로서 목욕실을 만들면 바닥이 물기로 진창이 될 수 있으므로 위에 언급된 재료들을 바닥에 깔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역본에선 이를 “甄石若木若碎石若沙”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책, 같은 권(권50)에서 “石若甄若木”과 같은 방식으로 벽돌과 돌을 구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³²⁾ 같은 문헌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그 쓰임이나 재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서 필자는 ‘甄石’ 역시 앞서 본 ‘搏石’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재료를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의 “甄石及牛毛”라는³³⁾ 표현도 같은 책에서의 “僧脚敲及下裙” 즉 “승각기(승기지)와 치마”라는³⁴⁾ 용례에서처럼 “전석(甄石)과 쇠털(牛毛)”이라는 두 가지의 재료를 대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해귀기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는 ‘甄石’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No.1428, 942a:5-7 “患泥 應以石甄若木作浴床. 患泥汚脚. 應以石甄塗地” ; 『大唐西域記』卷21, T.51, No.2087, 935b:1-3 “大城內外, 五窣堵波, 並過去四佛坐及經行遺迹之所, 無憂王建也. 自餘石甄諸窣堵波, 其數甚多, 難用備舉.” 특히 이 글에서 현장은 아육왕탑 다섯 솔도파를 제외한 그 밖의 여러 석전(石甄) 솔도파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 열거하기 힘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石甄諸窣堵波’는 ‘석솔도파, 벽돌솔도파’로 이해해야 하겠다.

31) “佛言. 聽別作小浴室, 若患地泥, 聽安甄石若木若碎石若沙, 若故泥應決去水.”(『四分律』卷50, T22, No.1428, 942b:18.)

32) 『四分律』卷50, T.22, No.1428, 938b:7-11 “佛言, 聽以石若甄若木作道, 爾時耆闍崛山中去水遠, 佛言, 聽作渠, 作時患渠崩決. 佛言, 聽以石若甄若木障兩邊, 若寺內應作池, 若池邊崩決, 聽以石若甄若木障四邊.”

33)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1, T.24, No.1451, 207a:13.

3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16, T.24, No.1451, 277a:15-16.

O. 전석(甄石) 위에 또는 작은 널판지(小版) 위에 그것을 둔다. 그 벽돌판(甄版)의 크기는 길이가 한 팔(一肘), 너비가 반 팔(半肘)이다.³⁵⁷

위의 글에 따르면 ‘甄石’이나 ‘小版’ 위에 무언가를 두라는 것인데 그 뒤에 이것을 ‘甄版’으로 칭하고 있다. 이것을 ‘벽돌(甄)과 널판지(版)’ 또는 단일재료로서의 ‘벽돌판(甄版)’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글에서는 단일재료로서의 크기까지 제시하고 있어 ‘甄石’과 ‘甄’이 같은 재료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甄石’은 지금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전돌’을 일컫는 것으로서 주로 바닥재로 사용되는 돌처럼 단단한 경성(硬性)의 방형의 벽돌을 가리킨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서도 ‘甄石’을 조위(曹魏, 220~266)의 장읍(張揖)이 편찬한 『埤蒼』을 근거로 ‘甄也, 考聲云甃也’라고 하여 ‘甄’, ‘甃’과 같은 의미임을 밝히고 있다.³⁶⁷ 따라서 ‘甄石=甄’으로서 ‘돌같은 벽돌’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낱글자로서의 ‘塼’과 ‘甄’은 어떤 관계일까?

‘甄’은 ‘塼’과 ‘磚’이라는 이체자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후한(後漢) 대에 통용되던 모든 글자 9,335자와 이체자 1,163자가 수록된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앞의 세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곧 『설문해자』가 편찬되던 당시 까지도 ‘甄(塼, 磚)’이라는 글자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료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후대의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甄’을 ‘燒擊’과 ‘甃’이라 하였으며 ‘塼’과 ‘磚’도 모두 ‘同甄也’라고 하여 모두 ‘날벽돌을 번조한 소성벽돌’이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강희자전』의 ‘甄’, ‘塼’, ‘磚’조는 “오조(烏曹)가 ‘甄’자를 만들었다(烏曹作甄).”고 하는 『고사고(古史考)』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³⁷⁷ ‘甄’이 ‘塼’과 ‘磚’의 본자(本字)임을 밝히고 있다.³⁸⁷

이처럼 ‘塼’이 비록 ‘甄’의 속자이긴 하지만 ‘塼石’과 ‘甄石’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 별개의 재료로서 하나는 가공된 마름돌, 다른 하나는 소성벽돌을 일컫었던 것으로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자신이 인도에서 보았던 불탑의 탑재를 막연히 ‘벽돌이나 돌’이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 사용된

³⁵⁷ “於甄石上, 或小版上, 而安置之 其甄版量, 長一肘闊半肘.”(『南海寄歸內法傳』卷2, T.54, No.2125, 218a:28-29.)

³⁶⁷ 『一切經音義』卷55, T.54, No.2128, 671c:10 ; 『一切經音義』卷83, T.54, No.2128, 843c:24.

³⁷⁷ 『古史考』는 후한 말기에 초주(譙周, 207~270)가 저술한 것이라 한다.

³⁸⁷ 『一切經音義』에서도 ‘磚’을 ‘甄’의 속자라고 하여 모두 ‘甄’을 본자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經從石作磚俗字也”(『一切經音義』卷4, T.54, No.2128, 536c:7.)

용어로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구분하여 적시했던 것이라 생각된다.³⁹⁾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甄石’이 ‘博石’의 대체제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것인데, 그 실례를 ‘대안탑(大雁塔)’으로도 불리는 ‘자은사탑(慈恩寺塔)’의 건립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P. 영희 3년(652) 3월에 법사는 절의 단문(端門) 남쪽에 돌로 만든 부도를 세워서 서역에서 가지고 온 경전과 불상을 안치할 계획을 세웠다. 법사의 생각은 세상이란 것은 워낙 무성한 것이므로 경본이 산실될까 걱정도 되고, 또 화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부도의 폭과 높이는 30장으로 하여 대국의 승엄한 기틀을 나타내고 석가의 고적(故迹)을 따라 만들기로 했다. 법사는 장차 이 부도를 건립하기 위해 표를 올려 상주했는데, 칙사인 중서사인 이의 부가 와서 법사에게 조칙을 전해 주었다. “법사가 세우려는 탑은 공력이 크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벽돌로 짓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법사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소.”…이에 벽돌(甄)을 써서 짓기로 하고, 법사는 새로 서원(西院)으로 옮겼다. 탑기의 4면은 각각 140척인데, 서역의 제도를 모방하여 중국의 옛날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탑은 5층으로 되었고, 상륜과 노반이 있으며 총 높이는 180척이나 되었다. 층층마다 중심에 사리가 있는데 혹 1, 2천이라 하나 무릇 1만 여립이다. 상층(上層)은 돌로 방(室)을 만들었다.⁴⁰⁾

Q. 이때 삼장법사는 친히 삼태기(簣)를 지고 전석(甄石)을 운반했다. 이렇게 2년이 걸려 이 탑은 완성되었다.⁴¹⁾

위의 글은 현장의 제자 혜립(慧立, 615~?)이 편찬한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의 일부이다. 내용에 따르면 현장은 자신이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과 불상을 산실(散失)·화난(火難)으로부터 지켜내기 위

³⁹⁾ 이러한 용어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인도·서역출신의 역경승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경험한 불탑과 그 재료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후 점차 불교의 성장을 통해 불탑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탑제에 대한 이러한 조어(造語)들이 널리 통용되면서 일반명사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⁴⁰⁾ “永徽三年春三月，法師欲於寺端門之陽造石浮圖，安置西域所將經像，其意恐人代不常，經本散失，兼防火難，浮圖量高三十丈，擬顯大國之崇基，爲釋迦之故迹，將欲營築，附表聞奏，勅使中書舍人李義府報法師云，師所營塔功大，恐難卒成，宜用甄造，亦不願師辛苦…於是用甄，仍改就西院，其塔基面各一百四十尺，倣西域制度，不循此舊式也，塔有五級，并相輪露槃，凡高一百八十尺，層層中心皆有舍利，或一千二千，凡一萬餘粒，上層以石爲室”(『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7, T.50, No.2053, 260c:15-27.)

⁴¹⁾ “時三藏親負簣畚，擔運甄石，首尾二周，功業斯畢”(앞의 책, 261a:25-26.)

해 기존의 중국식 불탑이 아닌 새로운 건축식 석탑을 자은사에 건립하려 했지만, 당 황제는 칙을 내려 현장의 계획대로 불탑을 석탑으로 조성할 경우 공력이 크게 들어 공사를 마칠 수 없을 것(營塔功大, 恐難卒成)이기 때문에 탑재를 ‘甄’으로 바꿔 불탑을 건립토록 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자신도 ‘甄石’을 날라 전탑(甄塔)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사실을 위의 글 Q는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甄石’과 ‘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장의 건탑 사업이 황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황제는 왜 칙을 내려가면서까지 현장이 계획한 석탑을 전탑으로 변경할 것을 명했던 것일까? 더구나 자은사탑은 황실이 직접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국립사원의 불탑임에도 황제와 조정은 왜 석탑으로 건립할 경우 공력이 크게 들어 탑을 완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 2. 송약사탑(嵩岳寺塔), 523년, 북위(北魏)

첫째, 이미 이 당시 중국에는 ‘송약사탑’(523년)(도 2)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탍식의 다층형 전탑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석재를 이용하여 건축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조성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석재의 하중과 관련된 공법상의 문제 때문인지 중국 전통의 벽돌 건축에 대한 집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국의 고탍식의 다층형 전탑들은 하나같이 7세기 중엽이후에 창건되거나 중건된 것이다. 이에 비해 석탑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들은 그 대부분이 7세기 초~9세기에 조성된 2층 이하의 사리탑(불탑)이나 승묘탑(僧墓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당시의 건축 공법이 가지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당시

중국의 기술력 부족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안 된다.

현상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자면 현재 전하는 고탑식의 다층형 전탑의 대부분은 중공식(中空式) 즉 내부가 개방된 형식을 취한다. 이것을 단순히 목조탑의 영향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불탑 경내에 들어가 불상이나 사리를 예배했던 불교의례 행위와 사당(廟)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중국 전통의 의례가 복합적으로 절충된 데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중국 불탑은 그 재료의 여하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실내에 출입이 가능한 탑실(塔室)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전탑의 경우에는 이후 탑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라도 개설되어 전탑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불탑의 실내공간이 매우 중요한 의례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목탑은 물론 전탑에까지 이러한 공간의식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런 공간적 특징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실제의 의례가 행해지는 층에만 탑실 공간을 마련하거나 전체 층을 하나로 공동화 하는 것이다. 전자는 앞의 글 P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층은 사리를 안치하고 매운 후 상층에 방을 만드는 경우이다. 다만,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형 전탑일 경우 초층(初層)에 공간을 만들고 상층부를 매우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의 전탑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반면 후자는 현재 전하고 있는 중국 전탑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재미 있는 것은 두 경우 모두 탑재의 하중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탑식일 경우 내부를 공동화하여 탑을 높이 쌓더라도 상층부에서부터 쌓여 내려오는 벽돌의 무게를 최소화한다. 더불어 내부를 흙으로 채워 넣은 후 외부에만 벽돌을 쌓는 ‘토심전축’ 방식도 전탑에 사용되었는데 아마 앞서 설명한 창건 자은사탑에 바로 이러한 기법이 이용된 듯하다. 하지만 만일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할 경우 석재 무게로 인한 하중의 부담은 벽돌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분황사석탑의 내부가 폐쇄형이라는 점은 이것과 관련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⁴²⁾ 더구나 앞서 Q의 글에서 현장이 자은사탑 공사를 위해 직접 삼태기에 벽돌을 지고 날랐다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7세기 중엽까지는 연와조의 벽돌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만일 석재를 사용했다면 공력의 부담은 실로 상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탑실 공간을 염두에 두고 석재를 사용해 불탑을 건립할 경우에는 저층을 지향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러한 저층형의 탑파건축이 단순히 탑재 선택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그러한 공간의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고

⁴²⁾ 김준영, 앞의 논문, 2014, 71~80쪽 참고.

탑식의 전탑과 저층식의 석탑은 처음부터 그 조형의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둘째, 당시로서는 석탑공사로 인한 ‘공력’의 부담, 이를테면 석재의 공급 문제와 치석과 관련한 가공 문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인력동원 문제와 경제적 부담 등이 전탑 건립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했을 것(“營塔功大”)이라는 점이다. 특히 석재의 공급과 가공 등에 따른 여러 현실적 고충은 아마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법에 대한 부적응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전탑 건립도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닌데 그것은 전탑건립을 위해 작업장 주위에 벽돌을 굽는 가마터를 설치하고⁴³⁾ 그것을 전담하는 ‘瓦師’나 ‘塼(甗)師’와⁴⁴⁾ 같은 전담 장인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규모의 불탑을 건립한다고 가정할 때, 흙을 채취한 후 배합과 틀 작업을 거쳐 작업장 주변의 가마에서 전문장인들이 대량으로 구워낸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과 암석을 채취·운반한 후 그것을 방형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거친 석재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은 작업량에서나 기간에서나 그리고 그것에 동원되는 인력 면에서 비교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고탑식의 다층형 전탑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당시 중국에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공법의 고탑식 다층형 석탑 건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실제 고탑식의 다층형 석탑 건립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바로 위의 글 P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장이 석재를 이용해 새로운 인도식 불탑을 건립하려 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이 인도에서 직접 목격했던 신앙식의 불탑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새로운 건축 공법이 당시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5층 규모의 석탑으로 세우려 했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자은사

43) 다음의 내용은 전탑을 건립할 때 그 주변에 가마터를 만들어 탑재를 공급했었던 사실을 짐작케 한다. 『法苑珠林』卷14, T.53, No.2122, 396a:28-396b:1 및 『道宣律師感通錄』, T.52, No.2107, 438a:12-438a:14 “又問。今玉華宮南檀臺山上有甗塔。面別四十步。下層極壯。四面石龕。傍有碎甗。又有三十餘窯甗。”

44) 벽돌을 굽는 장인으로는 ‘瓦師’ 또는 ‘瓦博士’가 대표적이며, 이들이 기와와 벽돌제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塼(甗)師’라는 명칭은 수대(隋代)에 사나굴다(闍那曩多)가 한역한 『佛本行集經』(卷5, T.3, No.190, 675a:26)과 당대에 의정이 한역한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卷12, T.24, No.1448, 53b:3), 그리고 남송대(南宋代)에 조성된 『五燈會元』(卷17) 등에서만 보인다. 따라서 문헌만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추론해보면 비록 앞의 두 문헌이 한역이라는 점에서 이미 기존에 중국에 있었던 직책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 밖의 문헌에서는 ‘瓦師’,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瓦博士’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벽돌 전문 장인으로 보이는 ‘塼(甗)師’는 비교적 후대에 성립된 개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탑을 목탑이 아닌 전탑으로 조성한 것은 아마도 ‘쌓기’라는 동일한 공법과 그것을 통해 석탑과 닮은 외형적 특징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중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방형의 누각식·밀침식의 고탕형 다층 전탑 대부분이 7세기 중엽 이후에 세워지거나 중건(重建)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⁴⁵⁾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방형의 고탕식 다층탑일 경우 석탑으로 조성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전해지는 석탑은 주로 2층 이하 형식에 한한다. 물론 전탑이 규모에 상관없이 대중을 이루는 속에서 방형의 미를들을 ‘쌓기식’으로 조성한 석탑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마저 2층 이하의 규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비록 대형의 고탕식(高塔式)은 아니지만 현장법사의 묘탑(墓塔)으로 알려진 흥교사(興敎寺)의 현장탑(玄奘塔, 669)도 5층 전탑으로 건립되었는데 이런 예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다면 중국에서는 쌓기식 불탑의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탑을 기본으로 하되 석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2층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나름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탑과 석탑의 조형의식에서 비롯한 차이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IV. 중국의 석탑에 대한 인식과 모전석탑 양식의 전래

현재 중국에 전해지고 있는 ‘모전석탑’ 즉 방형 미를들로 쌓아 만든 석탑은 산동성 신통사(神通寺)의 사문탑(611)과(도 3) 용호탑(龍虎塔, 8세기), 산동성 영암사의 혜승선사탑(慧崇禪師塔, 742 ~ 756)(도 4), 산서성 법흥사(法興寺) 사리탑, 그리고 산서성 해혜원(海慧院)의 명혜대사탑(明惠大師塔, 877) 등이 있다.⁴⁶⁾ 이 중 사문탑과 법흥사의 사리탑을 제외한 나머지는 승묘탑(僧墓塔)으로

⁴⁵⁾ 특히 누각식 전탑으로 알려진 현재의 대안탑이 원래의 모습과는 달랐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의 글 P와 Q의 내용대로라면 원래의 자은사탑은 5층으로서 상하층으로 나누어 상층부는 탑실(塔室), 하층부는 사리를 안치하고 내부를 메운 후 외벽을 벽돌로 쌓았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은사탑은 701년에서 704년 사이에 무축천의 명으로 새로 건립한 후 현재에 다시 건립된 것이며, 명대에 외벽에 다시 벽돌로 더 둘러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⁴⁶⁾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4 隋·唐, 小學館(東京), 1997, 114~116쪽; 傅熹年, 『中國古代建築史』卷2,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509~522쪽.



도 3. 사문탑(四門塔), 611년(隋), 산둥(山東) 제남시(濟南市)



도 4. 혜승선사탑(慧崇禪師塔), 8세기 중엽 산둥 장천현

모두 단층 또는 2층 형식이다. 실제 현상적인 면에서 전탑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조성되는 반면 석탑일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규모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소형의 승묘탑은 판석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사리탑(불탑)의 경우에는 대개 방형으로 가공된 마름돌로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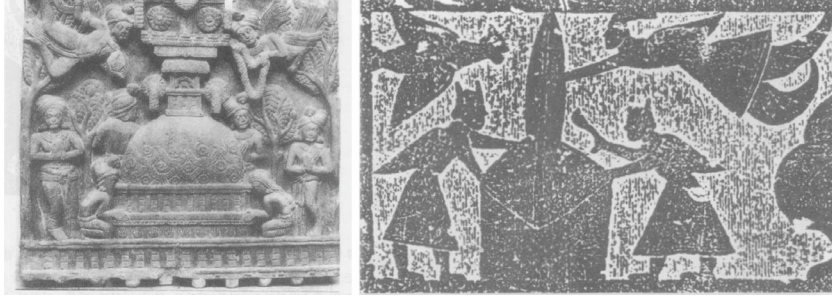
이처럼 방형 마름돌을 탑재로 이용한 예는 인도의 산치 스투파(BC 3세기), 간다라 스투파(1~2세기), 인도네시아 자바의 보로부두르 사원 및 스투파(8세기), 태국 치앙마이와트의 체트웃(13세기), 캄보디아의 마하-로세-아쉬람(5~6세기), 중국 산둥성의 사문탑, 신라의 분황사석탑(芬皇寺石塔, 634년) 등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마름돌을 이용한 쌓기식 기법은 전탑과는 별

개로 불탑 제작 방식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굳이 앞서 보았던 대안탑의⁴⁷⁾ 예가 아니더라도 방형의 마름돌을 이용한 석탑과 벽돌을 이용한 전탑이 공존하는 많은 예들을 통해 방형돌과 벽돌의 사용은 선후(先後)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서 보았듯이 이미 고유섭 선생도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탑이 나타난 이후 비교적 후대의 현상이고 그 시작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석탑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인도 스투파로 본다.

중국과 인도의 교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중 후한(後漢)대의 석조 무덤을 통해 두 지역의 직접적인 교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47)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7, T.50, No.2053, 260c ; 『佛祖歷代通載』卷12, T.49, No.2036, 576a.



도 5. (좌)불탑공양 부조, 2세기, 바르후트, 워싱턴 프리어미술관 ; (우)탑승배, 武氏사당 좌실 후한 말기

고 한다.⁴⁸⁾ 그리고 그 근거로 산둥지역의 후한대의 사당과 무덤에서 인도 산치와 바르후트의 탑부조 도상, 간다라와 중인도의 불상을 모티프로 삼은 화상석(도 5) 등을 들기도 한다.⁴⁹⁾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후한대 부터 이미 인도의 문화가 중국에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다음 내용이 그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R. 낙양에 처음으로 백마사를 지었다. 부도가 성대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화적이 매우 심묘하였다. 방형(四方式)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릇 궁탑제도(宮塔制度)를 따른 것이며 천축 불탑의 옛 모습대로 중층형으로 지었는데(重構之), 1층 및 3층, 5층, 7층, 9층에 이르렀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앞다투어 따랐는데 이것을 부도(浮圖)라 하며 혹은 불도(佛圖)라고도 한다. 진대에 이르면 낙양에 부도가 42개소 있었다.⁵⁰⁾

이 글은 『위서(魏書)』의 ‘석로지(釋老志)’ 내용 중 일부이다. 내용에 따르면 낙양의 백마사(白馬寺)에 심묘한 그림으로 장엄된 방형의 불탑이 세워져 있었으며, 옛 천축식 불탑 모양에 따르되 단층형은 물론 3·5·7·9층의 중층(重層)으로 짓는 것이 탑을 만드는 이당시의 법식(宮塔制度)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탑제(塔制)에 따라 불탑을 세웠으며, 진대(晉代)에는 낙양에 42개의 불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일 이 내용대로 당시 낙양의 불탑

48) 김병준 역(우흥, Wu Hung 저), 『순간과 영원 : 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 대우학술총서 515, 2001, 아카넷, 310~318쪽.

49) 앞의 책, 331~345쪽.

50) “自洛中構白馬寺, 盛飾佛圖, 畫迹甚妙, 爲四方式, 凡宮塔制度, 猶依天竺舊狀而重構之, 從一級至三五七九, 世人相承, 謂之浮圖, 或云佛圖, 晉世洛中佛圖, 有四十二所矣”(『魏書』卷114, 『釋老志』.)

들이 대부분 인도식의 중층형 불탑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⁵¹⁾ 당시 중국의 불탑 건축에 미친 인도식 불탑의 영향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는 북위대의 낙양 보광사(寶光寺)와 영응사(靈應寺)에 관한 내용이 전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두 사찰은 원래 이전 진(晉)대에 건립된 석탑사(石塔寺)와 태강사(太康寺)였으며 이 곳에 3층 규모의 석탑과 전탑이 각각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⁵²⁾ 그렇다면 이 두 사찰은 앞의 『위서』에서 진대의 낙양에 있었다고 하는 42개의 사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⁵³⁾ 그리고 위의 글에서 ‘世人相承’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인도식으로 조성된 백마사 불탑을 따랐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두 사찰의 불탑 역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특히 보광사탑에는 그림이 정치(精緻)하게 조각되어 있었다(畫工雕刻)고 하는데 이것은 백마사탑이 신묘한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盛飾佛圖, 畫迹甚妙)는 위의 글(R)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백마사의 기원이 중인도 출신 섭마등(攝摩騰)·축법란(竺法蘭)의 입화(入華)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⁵⁴⁾ 백마사 불탑은 인도 스투파와 전혀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백마사탑과 보광사탑의 장엄 조식에 대한 표현은 마치 인도 스투파의 기단과 탑신을 장엄하고 있는 화려하고 회화적 요소가 뛰어난 조각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보광사의 원래 명칭이었다고 하는 ‘석탑사(石塔寺)’라는 사명은 이곳이 석탑형 사원이었을 가능성과 또는 이곳에 석탑이 있었을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지만 이 사찰이 석탑과 관련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만일 이 석탑이 백마사탑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그 규모와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방형 마름들로 쌓은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본다면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진 이후 인도 스투파 또는 인도식 불탑에 대한 지식과 함께 마름들을 쌓는 방식이 중국에 전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51) 傳嘉年, 앞의 책, 2003, 176쪽.

52) 『洛陽伽藍記』卷4, T.51, No.2092, 1014c:18-1015a:2 “寶光寺, 在西陽門外御道北, 有三層浮圖一所, 以石爲基, 形製甚古, 畫工雕刻, 隱士趙逸見而嘆曰, 晉朝石塔寺今爲寶光寺也, 人問其故, 逸曰晉朝三十二寺, 盡皆湮滅, 唯此寺獨存”; 『洛陽伽藍記』卷2, 1006a:8-15 “龍驤將軍王濬, 平吳之後始立此寺(太康寺), 本有三層浮圖, 用磚爲之, 指子休園中曰, 此是故處, 子休掘而驗之, 果得磚數十萬, 兼有石銘云, 晉太康六年歲次乙巳九月甲戌朔八日辛巳儀司三司襄陽侯王濬敬造, 時園中果榮蔚林木扶疎, 乃服逸言, 號爲聖人, 子休遂捨宅爲靈應寺, 所得之磚, 還爲三層浮圖”

53) 『洛陽伽藍記』에는 보광사(寶光寺)가 진대(晉代)의 32개 사찰 중 유일하게 남은 절이라고 한다. 『洛陽伽藍記』卷4, T.51, No.2092, 1015a:1-2 “晉朝三十二寺 盡皆湮滅 唯此寺獨存”

54) 『高僧傳』卷1, T.50, No.2059, 322c:15-323a:7; 『歷代三寶紀』卷4, T.49, No.2034, 49b:5-49c:9.

『광홍명집(光弘明集)』에는 목조건축의 가구식(架構式)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도 기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S. 황흥(皇興) 원년(467)에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가 태어났는데 항안(恒安)의 북대(北臺)에 영령사(永寧寺)와 7층 부도를 세웠다. 높이가 3백여 척이고, 그 기초가 넓은 것이 천하제일이었다. 또 천궁사(天宮寺)에 석가의 성상을 조성하였는데, 높이가 43척이고 적금 10만 근과 황금 6백 근을 사용하였다. 다시 높이가 10장이나 되는 3층의 석조 부도를 조성하였는데, 대들보와 서까래까지 위아래를 연이어 쌓아 올리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돌로 쌓아 올렸다.⁵⁵⁾

위의 내용에 따르면 북위 황흥원년(皇興元年, 467)에 10장(丈) 높이의 3층 석탑을 평성(平城)의 천궁사(天宮寺)에 세웠는데 “모두 크고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서까래와 용마루, 그리고 문과 기둥을 상하로 중첩 결구해서(檼棟楣楹上下重結, 大小皆石)” 만들었다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륵사지 석탑(639)을(도 6) 연상시키는데 이러한 ‘가구식’의 조탑법이 7세기



도 6. 미륵사지 석탑, 639년, 백제

전반에 백제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탑법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 석탑 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이 미륵돌을 쌓는 방식에 대한 중국화의 결과인지, 기존 목조건축과의 결합을 통한 변형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지 목조건축물에 대한 조형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단지 재료에 대한 의식변화 때문인지의 여부는 추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수직의 중층형 건물을 석조 가구식으로 세우려면 중층형의 목조 건축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기술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탑신 1층에 탑실(塔室)과 같은 내부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포개어지면서 쌓여 내려오는 석재의 하중을 해결하기 위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⁵⁶⁾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 건

⁵⁵⁾ “皇興元年…於天宮寺, 造釋迦文像, 高四十三尺, 用赤金十萬斤黃金六百斤, 又構三級石佛圖高十丈, 檼棟楣楹上下重結, 大小皆石”(『廣弘明集』卷2, T.52, No.2103, 104a:9-10.)

⁵⁶⁾ 권중남, 『皇龍寺九層塔 : 고대 목탑의 구조와 의장』, 미술문화, 2006, 48~52쪽 참고.



도 7. 미륵사지석탑 심주석 해체작업

축의 외부 기둥과 목탑의 찰주를 모방한 방향의 실내 석주를 세우고 ‘+’자형의 내부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석재로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상층으로부터의 하중문제를 해결했다(도 7). 그럼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실내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아

마도 탑실 공간에 대한 의식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천궁사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조형의식과 석재에 대한 인식이 절충된 중국식의 석탑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⁵⁷⁾

중국에서는 격의불교(格義佛敎) 과정을 거치면서⁵⁸⁾ 인도의 사리탑을 무덤으로 이해하여 불탑을 사당(祠堂) 또는 묘탑(廟塔또는 塔廟)으로 인식했는데⁵⁹⁾ 이것은 불교를 받아들이는 당시 중국인들의 관점에서이고, 전교(傳敎)활동을 위해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인도·서역출신의 승려들에게 불탑은 엄연히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불교가 널리 확산되고 교리가 보다 정교해지면서 불탑에 대한 본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중국에서도 불탑이 인도에서처럼 불교의 중요한 신앙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탑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결국 인도 불탑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전륜성왕 관념과 아유왕탑 전설이 중국 황실의 정치력과 밀접

57) 미륵사지 석탑이 완전히 목조 방식으로 건립된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4세기 이후부터 급격히 확산된 불교의 영향으로 5층 이상의 고층 불탑이 앞다투어 건립되었음에도 5세기 중엽 이후에 천궁사탑이 조성된 것에 필자는 주목하고 싶다. 미륵사지 석탑이 7세기 전반(639)에 건립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도 이 무렵에는 가구식 석탑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쌓여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목조 부재를 석재로 번안하는 번잡하고 힘든 과정 때문에 크게 유행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미륵사지석탑과 정림사지석탑의 관계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엄기표, 『百濟 石塔의 先後에 대한 考察 : 木造建築 요소를 중심으로』, 『문화사학』16, 2001, 29~86쪽 참고.)

58) 격의불교(格義佛敎)에 대해서는 다음을 할 것. 박해당 역(케네쓰 첸, K.S. Kenneth Ch'en 저), 『중국불교사』上, 민족사, 1991, 70~136쪽; 양필승 역(아서 라이트, Arthur F. Wright 저), 『中國史와 佛敎』, 신서원, 1997, 49~67쪽; 이종철, 『중국 불경의 탄생』, 창비, 2008, 24~27쪽.

59) 『魏書』卷114, 『釋老志』, “佛既謝世, 木焚尸, 靈骨分碎…謂之舍利, 弟子收奉, 置之寶瓶, 竭香花, 致敬慕, 建宮宇, 謂爲塔, 塔亦胡言, 猶宗廟也, 故世稱塔廟.”

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중국 불교의 정점에 서있는 황실에까지 인도식 불탑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⁰⁾

더욱이 북쪽의 실크로드와 함께 중국의 주요 무역로였던 남해로(南海路)를 통해 인도, 그리고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동남아시아의 불교문화까지 유입되면서 당시 이들 지역의 불탑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⁶¹⁾ 특히 5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도 8. 치앙마이 와트(Chiang Mai Watt) 스투파의 조축법, 태국

여러 나라에서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중국 황실에 이들 지역의 불상과 사리가 전래되기도 하는 등 중국과 이들 지역과의 활발했던 교류는 주지의 사실이다.⁶²⁾ 특히 태국에는 석탑의 재료로 사암처럼 경도가 낮은 연석(軟石)이 주로 사용되었는데(도 8) 이것은 아마도 가공의 용이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나타난 불탑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문탑’(四門塔, 611)이다.

⁶⁰⁾ 당시는 아육왕탑이 출현한 곳은 불교적 이상군주인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불국토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양무제와 수문제 등도 이런 관념을 이용해 자신이 전륜성왕임을 드러냈다. (소현숙, 『北響堂石窟 北洞의 轉輪聖王 상징』, 『미술사학연구』25, 2007, 192쪽); 박해당 역(케네스 첸 저), 앞의 책, 221~223쪽; Arthur F. Wright, “The Formation of Sui Ideology”, *Chinese Thought and Institution*, John K. Fairbank ed, 1957, pp.93~104; Kathy Cheng-Mei Ku, “The Budharaja Image of Emperor Wu of Liang”, *Philosophy and Religion in Early Medieval Chin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New York), 2010, pp.265~267.

⁶¹⁾ 박경식, 앞의 논문, 171~175쪽; 정예경, 『중국 복제·복주 불상연구』, 혜안, 1999, 22~26쪽 및 33~43쪽; 정수일, 『문명교류사의 연구』, 사계절, 2002, 139~141쪽; 김병화 역(제리 벤틀리, Jerry H. Bently 저),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2008, 323~396쪽; Alexander Coburn Soper,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rtibus Asiae Supplementum*(19), Artibus Asiae Publ, 1959 및 “South Chinese influence on the Buddhist art of the Six Dynasties period”, *Bulletin of Museum of Far East Antiquity*, 1960, pp.47~112; 村松哲文, 『雲門山石窟における菩薩像の腰帶表現』, 『東洋美術史論叢』, 雄山閣(東京), 1999, 207~208쪽 참고.

⁶²⁾ 『南史』卷78 “師子國 天竺旁國也…晉義熙初始遣使獻玉像經十載, 乃至像高四尺二寸”; 『宋書』卷97 “師子國, 元嘉五年…四道人遣二白衣, 送牙臺像” 및 “天竺迦毗黎國, 元嘉五年, 國王月愛遣使奉表”; 『梁書』卷54 “扶南國(天監)十八年, 復遣使, 送天竺旃檀瑞像, 婆羅樹葉并, 獻火齊珠鬱金蘼合等香普”; 정재정,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10; 정예경, 앞의 책, 1998, 19~46쪽.

‘사문탑(四門塔)’은⁶³⁾ 우리나라의 분황사석탑과 형식적인 면에서 많이 비교되는 석탑으로서 수(隋) 대업(大業) 7년(611)에 만들어진 단층형의 석탑이다. 이러한 단층형 석탑은 중국 전통의 중층형 불탑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목탑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당(唐)대 까지 건립된 불탑 중 탑신의 사면에 문을 개설한 유일한 예라고 한다.⁶⁴⁾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은 인도 산치 스투파의 사면(四面) 주위에 설치된 토라나(torana)에서 기원해 이후 간다라와 동남아시아 스투파의 사면 감실(龕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문탑이라는 탑명(塔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탑의 탑신 사면에는 실내로 출입이 가능한 아치형의 문이 개설되어 있다. 탑의 내부는 사방에 불상이 놓인⁶⁵⁾ 방형의 중심기둥이 그 주위를 돌 수 있는 ‘요도(繞道)’로 둘러싸여 있는데 운강석굴 6굴의 실내구조와 거의 일치한다. 이 때문에 이 둘을 동일한 공간의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⁶⁾ 특히 사문탑 사면에 개설된 문과 실내 중심 기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비가 설치되지 않은 문을 통해 보이는 실내의 불상은 각각의 출입문이 마치 불상이 안치된 독립된 감실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연출한다.⁶⁷⁾ 이것은 사면 감실, 그리고 탑실과 같은 중국 특유의 공간관념이 혼용(混融)된 사문탑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하겠다.⁶⁸⁾

63) 사문탑(四門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馬保全, 『四門塔』, 『上海集郵』12, 2007, 14~15쪽; 姜繼興, 『四門塔的歷史』, 『城鄉建設』12, 2005, 78쪽; 于廷, 『四門塔』, 『文物』4, 1978, 13쪽.

64)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41, 2013, 174쪽.

65) 사문탑의 불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村松哲文, 『山東省神通寺四門塔内の四仏について』, 『美術史研究』41, 2003, 165~182쪽.

66) 傅熹年, 앞의 책, 213~214쪽.

67) 출입문의 상·하인방석에는 지도리구멍이 없어 건탑(建塔) 시에는 개방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박경식, 앞의 논문, 2013, 175쪽). 따라서 출입문을 통해 불탑의 각 방향에서 탑주(塔柱) 사면의 불상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68) 3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아마라바티 스투파(Amaravati Stupa)도 사문탑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현재 아마라바티 스투파는 탑신의 각 부분을 나누어 인도의 마드라스 박물관(the Madras Government Museum)과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를 조합한 복원도는 사문탑의 탑실공간과 같은 실내구조의 기원을 엿보게 한다(J.C. Harle, *The Art and Architecture of the Indian Subcontinent*,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34~35). 복원도에서의 불탑 형식은 전체적으로 산치 스투파와 거의 유사하지만, 특히 주목할 것은 불상이 부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단부 사면의 돌출부와 스투파를 둘러싼 난순(Vedika)과의 관계이다. 더욱이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사면 돌출부의 전면에는 난순 출입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12세기에 조성된 스리랑카의 ‘와타다게(Wata-da-ge) 사당’에서도 볼 수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 사문탑은 중국 전통의 목조탑보다는 복발형 인도 스투파의 특징에 가까운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⁶⁹⁾ 운강석굴·용문석굴·향당산석굴 등에 표현된 복발형 지붕의 단층 불탑이 ‘사문탑’과 같은 단층형 석탑 형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⁷⁰⁾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중국에서 현지화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형태로 변화를 이룬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7세기 아스카시대(飛鳥時代)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호류지 소장 ‘타마무시노즈시(玉蟲廚子)’의 뒷면 상단에 그려진 그림에서 중국 돈황 막고굴 제30굴 벽화에 등장하는 단층형 복발탑과 유사한 탑형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동아시아에는 단층형 복발탑 또는 단층형 복발 지붕탑에 대한 인식이 진작부터 전해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당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섭을 통해 중국으로 전해진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동남아시아의 석탑 대부분이 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지만,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8세기)와 캄보디아의 ‘마하 로제이 아쉬람’(5~6세기) 등에 사용된 방형의 괴체형 마름돌 쌓기 방식은⁷¹⁾ 중국의 사문탑과 범홍사 사리탑, 그리고 혜승선사탑 같은 단층형 석탑의 조축법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중국석탑의 형식과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전탑과는 다른 중국 석탑의 형식적 특징, 즉 방형의 마름돌을 쌓아 만드는 일명 모전석탑식 중국 석탑의 특징과 기원을 통해 동아시아 모전석탑의

⁶⁹⁾ 陳清香, 『神通寺四門塔塔源』, 『中華佛學學報』17(臺北), 2004, 150~151쪽; Le Huu Phuoc, Ibid, pp.186~187; 한편 박경식은 이를 목조탑의 조축의식을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박경식, 앞의 논문, 2013, 163~194쪽); 필자는 사문탑이 특히 고식의 복발형 불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산치(Sanchi) 스투파와 그 영향을 받은 초기 간다라(Gandhara) 스투파, 남인도 아마라바티(Amarabati) 스투파, 그리고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 불탑 등과 같은 단층 기단의 복발형 스투파를 예로 들 수 있겠다.

⁷⁰⁾ 김준영, 앞의 논문, 2014, 85~92쪽 참고.

⁷¹⁾ 6세기 이후 인도에서는 테오가르 사원과 같이 블록식의 방형가공 석재를 이용한 단층형의 사원건축이 조성되는데 이런 조축법은 사문탑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캄보디아의 ‘마하 로제이 아쉬람(Maha Rosei Ashram, 5~6세기)’ 등과 같은 석조 건축에서도 이러한 예가 보이고 있어 남해를 통한 교류의 영향관계에서 주목된다.

유래를 고찰해 보았다. 특히 중국의 (모전)석탑이 단층과 2층 규모의 탑형에 한정되는 원인을 당시 7세기 중국인들의 조형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인도석탑과 석탑재에 대한 7세기 중국인들의 인식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당서역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도 불탑의 상당수는 아육왕탑(阿育王塔)으로서 방형의 마름돌로 쌓은 석탑이 많았지만 각 지역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맞추어 돌이 아닌 다른 재료로 불탑을 조성하기도 했다. 불교의 동전(東傳)과 함께 인도의 불탑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에도 7세기 초에 ‘사문탑’과 같은 방형 마름돌을 이용한 불탑이 제작되었으며 적어도 7세기 중엽까지도 이러한 방형 마름돌과 소성벽돌이 ‘塼石’과 ‘甃石’으로 각각 불렸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② 또한 7세기 중엽에 현장(玄奘)이 자은사(慈恩寺)에 세운 대안탑(大雁塔)은 원래 인도의 새로운 건축법을 이용하여 5층 규모의 석탑으로 조성하고자 했지만 공사의 어려움을 우려한 국왕의 명령으로 부득이 전탑으로 고쳐 건립되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이 마름돌을 쌓는 방식으로 고탑식의 다층형 석탑 건립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탑실에 대한 공간의식으로 말미암은 공법상의 한계와 석재를 이용하여 고탑을 건립할 경우 발생할 여러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가볍고 경제적인 벽돌이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식과 석재가 가지는 공법상의 한계로 석탑은 자연히 저층의 탑형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다.
- ③ 하지만 여기에는 7세기 초 수(隋) 황실의 적극적인 대외교섭 과정에 전해진 방형 마름돌을 쌓아 만드는 방식과 운강·용문석굴에서 발견되는 단층 복발형의 불탑 형식도 불탑 조축법의 원형으로 인식되어 석탑 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방형의 마름돌을 쌓이는 방식의 석탑은 인도에서 기원하여 간다라, 동남아시아, 중국,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마다의 특징과 절충·반영되어 전탑과는 별개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된다.

■ 투고일 2014년 7월 5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30일 ■

참고문헌

<사료>

- 『康熙字典』
- 『說文解字』
- 『高僧傳』
- 『廣弘明集』
- 『根本說一切有部目得迦』
-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 『洛陽伽藍記』
- 『南史』
- 『南海寄歸內法傳』
-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 『大唐西域記』
-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 『梁書』
- 『歷代三寶紀』
- 『般泥洹經』
- 『法苑珠林』
- 『佛般泥洹經』
- 『佛祖歷代通載』
- 『四分律』
- 『續高僧傳』
- 『宋書』
- 『魏書』
- 『一切經音義』
- 『中阿含經』
- 『集神州三寶感通錄』

<국내>

-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一)』, 『震檀學報』6, 1936.

-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二)』, 『佛敎』24, 불교사, 1940.
- 박해당 역(K.S. 케네쓰 첸 저), 『중국불교사』上, 민족사, 1991.
- 양필승 역(아서 라이트 저), 『中國史와 佛敎』, 신서원, 1997.
- 정예경, 『중국 북제·북주 불상연구』, 혜안, 1998.
- 박경식, 『芬皇寺模塼石塔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0, 1999.
- 이주형 역(벤자민 로울랜드 저), 『인도미술사』, 예경, 1999.
-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이주형 역(디트리히 제켈 저), 『불교미술』, 예경, 2000.
- 김병준 역(우홍 저), 『순간과 영원 : 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 아카넷, 2001.
- 엄기표, 『百濟 石塔의 先後에 대한 考察 : 木造建築 요소를 중심으로』, 『문화사학』16, 한국문화사학회, 2001.
- 정수일, 『문명교류사의 연구』, 사계절, 2002.
- 권종남, 『皇龍寺九層塔 : 고대 목탑의 구조와 의장』, 미술문화, 2006.
- 박경식, 『四門塔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9, 2007.
- 소현숙, 『北響堂石窟 北洞의 轉輪聖王 상징』, 『미술사학연구』25, 2007.
- 박경식, 『隋唐代의 佛塔研究(I) : 亭閣形 石造塔婆』, 『문화사학』29, 2008.
- 이종철, 『중국 불경의 탄생』, 창비, 2008.
- 김병화 역(제리 벤틀리 저),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2008.
-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上, 『又玄 高裕燮 全集』3, 열화당, 2010.
- 우인보, 『阿含部 經典의 佛塔信仰思想』, 『문화사학』33, 2010.
- 정재정,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41, 신라사학회, 2013.
- 김준영, 『芬皇寺石塔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국외>

- 藤島 亥治郎, 『慶州を中心とせる新羅時代變型三層石塔,五層石塔及び特殊型石塔』, 『建築雜誌』47(579), 1933.
- 關野 貞·關野貞博士記念事業會, 『慶州新羅における新羅時代の遺跡』,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東京), 1941.
-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4 隋·唐, 小學館(東京), 1997.
- 村松哲文, 『雲門山石窟における菩薩像の腰帶表現』, 『東洋美術史論叢』,

- 雄山閣(東京), 1999.
- 齊藤 忠, 『仏塔の研究』, 第一書房(東京), 2002.
- 傅熹年, 『中國古代建築史』2,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 陳清香, 『神通寺四門塔探源』, 『中華佛學學報』17(臺北), 2004.
- Arthur F. Wright, “The Formation of Sui Ideology”, Chinese Thought and Institution, John K. Fairbank ed, 1957.
- Alexander Coburn Soper,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rtibus Asiae Supplementum*(19), *Artibus Asiae Publ*, 1959.
- Alexander Coburn Soper, “South Chinese influence on the Buddhist art of the Six Dynasties period”, *Bulletin of Museum of Far East Antiquity*, 1960.
- Xinian Fu, *Chinese Architecture : The Three Kingdoms, Western and Eastern Jin, and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Yale University Press, 2002.
- Kathy Cheng-Mei Ku, “The Budharaja Image of Emperor Wu of Liang”, *Philosophy and Religion in Early Medieval Chin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New York), 2010.
- Le Huu Phuoc, *Buddhist Architecture*, Grafikol, 2010.

Abstract

Fragmentary consideration about East-Asia origin of 'Stone Brick Pagoda'

Kim, Joon-Yeong

When people often mention Chinese stone pagodas, they show the Four-Gates Pagoda(四門塔(611)) as a typical example. This has been known as the oldest pagoda in the Chinese brick and stone pagodas which have been handed down until now as a one-storied stone pagoda. By the way, the Chinese stone pagodas created by the stacking method before the 8th century were limited to the size which did not exceed two stories even after this pagoda was built, while high-rise pagodas were all created by brick pagodas. These characteristics are compared with the Stone Pagoda of Bunhwnagsa Temple which was built almost contemporarily in the Silla Dynasty and by the multistory type (多層高塔形). Probably, it is thought that this is related to awareness about the new pagoda pattern called stone brick pagoda and it's because it eventually came form awareness about bricks and square stone.

Many Indian pagodas mentioned in 『The Record of Travels to Western Lands』(Da Tang Xi-Yu-Ji : 大唐西域記) include a lot of pagodas which accumulate square ashlar as Ayuwangta, but they were created by other materials, not stone, to meet climate and natural environment of each area. As the Indian pagodas are spread out to China, The pagodas which used square ashlar like 'the Four-Door Pagoda'. And square ashlar and plastic stone were, at least, called 'boulder stone(搏石)' and 'bricks(甄石)' until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And Dayan Pagoda(大雁塔) which was built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originally tried to be created by the stone pagoda with a new Indian architecture method. It was inevitably changed and built to the brick pagoda by an order of the king who was worried about difficulties

of construction work. It is thought that Chinese technical skills to create high rise stone pagodas by the method which accumulates ashlar were not secured until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Therefore, for this reason, the tower types which used boulder stone(搏石) were limited to the size which is less than two stories. It is thought the method which accumulates square ashlar and create pagodas and the one-story Indian stupa type transferred in the foreign negotiation process of Su(隋)'s royal family in the beginning of the 7th century had an effect on creation of Chinese pagodas as they were recognized as the origin of the method to build pagodas.

Key Words : Stone Brick Pagoda, Brick Stone, Boulder Stone(搏石), Brick(甄石), Stone Pagoda(石塔), Four Gates Stupa(四門塔), Xuanzang(玄奘), Da Tang Xi-Yu-Ji(大唐西域記), Dàyàn Tǎ(大雁塔), Stupa

